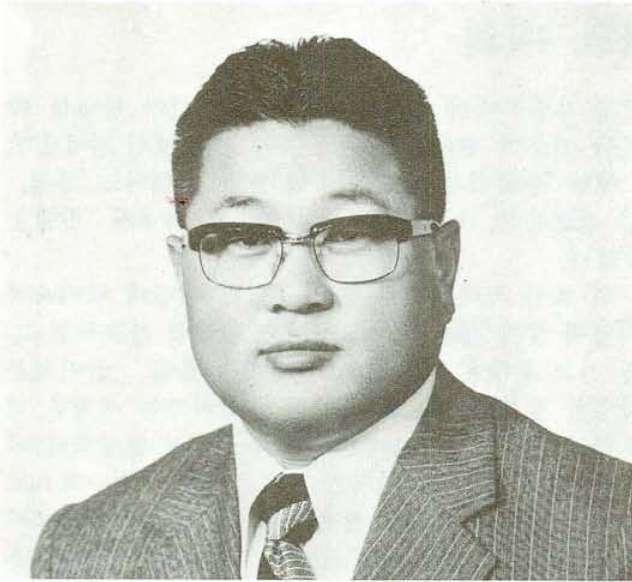


지역 지도자 메시지



가훈

박 재 암

서울 선교부장 제 1보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성은 이미 받은 계시에 기초를 두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계시에 따라 교회가 신권에 의해 인도되는 데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신앙 개조 제 5조 참조) 성신권의 권능으로 교회의 일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갑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이 가정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가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일성도의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성품과 자격을 이 지상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시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가족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가족으로서 승영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의 모든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여 영원한 가족 관계의 아름다운

고리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살다 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헛된 욕망,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생활, 남을 중오하며 비판하는 일, 기만, 도둑질,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일, 시기하는 태도, 살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 등 불의한 생활은 영원한 가족의 고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셔서 말일에 예언자와 사도를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지도력을 쌓은 훌륭한 신권 지도자를 주시어 성도들로 하여금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도록 돕고 계십니다.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고, 영원한 내세까지 영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신앙을 갖고 선행과 덕을 쌓으며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썼습니다. (벧후 1:5-7)

저는 이 권고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공급하려면 먼저 스스로 복음대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권고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 해의 왕국에 거할 자의 성품을 사회 생활에서는 물론 가정 생활에서도 나타내 보이도록 강조하는 곳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뿐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마 22:39 참조)

둘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

(벧전 2:23 참조)

셋째, 가정에서는 조용한 목소리(세미한 소리)로 말한다. (왕상 19:12 참조)

위의 가훈은 제가 오래 전부터 실천해 왔으며, 이 가훈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23년을 돌이켜 보고서 이를 완전하게 실천하였다고 만족한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드릴 때에 자신이 이를 생활의 좌우명으로 실천하고, 온 가족이 이 가훈을 기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가훈을 기억하시어 이 지상에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데 주님의 지혜를 선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1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선임 회장인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의 감리로 29일(토)제2와드에서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모임과 멜기세덱 신권 성인 모임, 30일(일) 시민 회관 별관(구 국회 의사당)에서 일반 총회가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리차즈 장로는 지난 해 10월 교회 반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에 대하여 설명한 후 1600명에 달하는 수련 장로(서울 스테이크)에 대한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제언하였다.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모임에 이어 가진 멜기세덱 신권 성인 모임에서 김 창선 부장과 최 옥환 부장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리차즈 장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재앙에 대비하는 데 있지 않고, 이 프로그램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 방법이므로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제4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 금재 자매는 비축에 관한 훌륭한 간증을 하여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였다.

30일 오전 9시 시민 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일반 총회는 스테이크 산하의 각 와드와 지부, 서울 선교부 산하의 인천 지부, 성남 지부, 화곡 지부, 그리고 새로 조직된 면목 지부와 잠실 지부, 이외에 서울

군인 지방부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장내를 꽉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모두 1644명이 참석했다.

일반 총회에서 성도들은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털 선교부장, 리차즈 장로와 리차즈 자매의 말씀을 들었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드리는 생활을 강조하였고, 털 선교 부장은 복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합당한 생활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권고하였다. 리차즈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영향력에 대한 간증을 드렸고, 리차즈 장로는 말일에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복음이 보다 빨리 보다 널리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리차즈 자매는 100명으로 구성된 스테이크 합창단(지휘, 임 규선 형제; 반주, 김 유미 자매)의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일반 총회에서 대제사 4명, 칠십인 5명, 장로 9명이 지지받았다.





프랭클린
리차드
장로
약력 소개

- 1900년 11월 17일. 유타주 옥든에서 출생함.
- 1934년까지 변호사로 일해 오다가 1935년 유타주 최초의 주택 장관에 임명되어 18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음.
- 1953년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후 워싱턴과 솔트레이크 시티 금융계 인사로 활약함.
- 1955년 3월 21일. 아더 에스 우즈 장로의 안수로 대체사로 성임됨.
- 1960년 10월 18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선교부장을 역임하던 중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고, 10월 9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안수로 십이사도 보조로 성별됨.
- 1976년 10월.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선임 회장으로 지 지받고 성별됨.
- 현재 아내인 헬렌 키어니스 리차드 자매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물몬경 타이어로 번역되다

타일랜드의 국어인 타이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이제 이들은 자기 나라 말로 된 물몬경을 갖게 되었다.

대관장단은 1976년 10월 17일 타일랜드의 수도 방콕에서 타이어판 물몬경 3000부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물몬경의 타이어 번역은 1969년 11월 15일에 착수되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9명이 번역, 검토, 타자, 교정을 맡아 7년동안 일했다. 이 타이어판 물몬경은 1972년 아프리카어로 된 물몬경이 발간된 이래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외국어 물몬경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어, 히람어판 물몬경도 곧 출간될 예

마카오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되다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의 해안 지방에 있는 폴투갈령 영토로, 홍콩의 서부 약 64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처음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종교 집회, 선교 활동 등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개정된 1976년 9월 6일부터였다. 현재 4명의 선교사가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선교부 제리 리 히이트 선교부장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 해 4월 십이사도 평의회의 고든 비 힐클리 장로는 두 아시아 지역 담당 고문, 히이트 선교부장과 함께 마카오에서의 선교 활동의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그 후 8월 26일에는 히이트 선교부장과 두 장로가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선교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곳에서는 주택난이 극심하여 선교사의 숙소를 얻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히이트 선교부장은 이곳에서 숙소를 구하기 위해 이 도시를 절반으로 나누어 한편에는 자신이 맡고 다른 한편은 두 선교사가 맡아 이 도시 전역을 살살이 뒤지기로 했다.

두 선교사는 이곳에서의 고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절반을 맡아 자전거로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빌리기로 했으나 어디서 그것을 빌릴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우리는 결국 두 개의 지도를 구했으나 하나는 폴투갈어로 되어 있었고 하나는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976년 9월 6일에 4명의 선교사가 마카오에 도착하여 비로소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착한 바로 그 날부터 구도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폴투갈, 인도네시아, 중국인 가족을 가르치고 있으며 2개월동안 24권의 물몬경을 팔았다. 1976년 말까지는 8명을 침례하라는 목표를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이다.

물몬경은 현재 영어를 제외한 19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잠실지부 개설

지난 1월 2일, 잠실 아파트 단지에서 잠실 지부가 새로 발족되었다. 잠실 지부는 한국 서울 선교부 산하의 지부로 조직되었다. 이날의 모임에는 서울 선교부장단과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이 참석했다.

하 봉식 형제는 잠실 지부 지부장으로, 김 과영 형제는 제1보좌로, 송 재현 형제는 제2보좌로 지 지받고 성별되었다.

집회소는 잠실 아파트(주택 공사 시공 아파트) 3 단지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잠실 지역 관리 선교사인 스콧 매드슨 장로는 잠실 지부의 발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활발히 행하여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1월 23일, 주일학교 정규 집회에 68명, 성찬식에 35명이 참석했다.



박 지정 자매 최고상 수상

서울 스테이크 제5와드 회원이며 서울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박 재암 형제의 영애 박 지정 자매가 지난 연말에 개최된 소년 조선 일보 주최 전국 아동 미술 실기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장위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박 자매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그림 솜씨를 발휘하여 여러 차례 미술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작년에는 교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잡지인 프렌즈지 11월호 표지에 박 자매의 그림이 실리기도 하였다.

음악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는 박 자매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다.



마산 지부 선교사 배출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 마산 지부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모든 회원이 선교사의 부름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산 지부 회원으로 김 동우 형제와 김 만금 형제가 선교 사업을 마쳤고 현재 신 영숙 자매가 인천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최근에 윤 복영 자매가 부름을 받고 임지로 떠났다.

신임 감독 / 지부장단 소개

서울 선교부

부산 선교부

화곡 지부

마산 지부

지 부 장 : 이 도환

지 부 장 : 황 효연

제1보좌 : 문 시우

제1보좌 : 권 영일

제2보좌 : 서 창현

제2보좌 : 정 갑규

광주 방문자 센터에 설치된 니코틴 함량 측정기

광주 방문자 센터에 새로운 기계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니코틴 측정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인체에 어떠한 해를 주며, 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많은 꺾연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지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던 1800년대에는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 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배가 여러 가지의 질병을 초래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니코틴 측정기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위해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기계로 말미암아 많은 광주 시민이 방문자 센터를 찾고 있으며, 이곳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모습을 배우고,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는 등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